

사고력 수학

상담이 쉬워지는 선생님 필독서

- 부모의 걱정을 공감으로 바꾸는
믿고 맡기고 싶은 선생님

PLAY MATHS, LOVE MATHS.

Spring
ClassC

목차

Prologue 왜 ‘학부모 상담’이 중요한가

- 상담이 수업 만족도와 재등록률에 미치는 영향
 - 선생님이 상담을 잘해야 수업도 편해진다.
-

Part 0. 수학은 ‘구별하기’에서 시작된다.

- 아이의 발달특성 이해하기
 -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
-

Part 1. 연령별 학부모 상담 포인트

- 5세부터 6학년까지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연령별 유의사항
 - 부모 질문 유형, 효과적인 설명법 제시
-

Part 2. 아이를 이해하면 상담이 쉬워진다.

- 수 감각, 연산력, 공간지각력, 감정기복 등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방법
-

Part 3. 유형별 학부모의 말, 어떻게 대응할까?

- “우리 아이 수학 머리가 없어요.”
“집에서는 잘하는데요?” 등 부모의 말 속 진짜 의미와 대화 전략
-

Part 4. 상담이 수업을 바꾼다.

- 상담 주기와 횟수 / 주기별 상담 내용
 - 선생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루틴 소개
 - 문자 관리
-

부록.

- 상담 메모 양식
 - 입회 상담 양식
 - 100문장 실전 상담 대화문
 - 교사 전문성을 위한 용어
-

프롤로그

상담이 어렵다고요?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수업은 잘 되는데, 상담만 하면 긴장되나요? 학부모님과과의 대화가 끝나면 "내가 괜한 말을 한 건 아닐까?" 고민이 되시나요? 혹은, 말은 잘했지만 정작 부모님이 '이해했는지', '신뢰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수업을 하며 수많은 학부모님을 만나왔지만, 처음엔 상담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이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부모님의 질문에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며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이후에도 부모님이 나를 '믿고 맡기게 하려면' 어떤 말이 효과적인지,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기록하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상담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시간”이라는 것. 수업만 잘해서는 아이도, 부모도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상담을 잘하면 부모님이 ‘선생님을 믿고 기다리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ですよ. 이 책은 저의 그 긴 시행착오 끝에 정리된 상담 노하우입니다.

특히, 5세부터 6학년까지의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공부방이나 교습소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실전형 상담 팁을 담았습니다.

- ✓ 어떤 말을 해야 할까?
- ✓ 이 행동은 왜 하는 걸까?
- ✓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는 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담이 처음이라 두려운 선생님,
매번 말문이 막혀 답답한 선생님,
부모님의 한마디에 상처받은 적 있는 선생님들께
든든한 동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봄클샘, 박채이 -

8~9세

실력과 태도의 전환점, 비교와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

1. 아이의 특징

- 개인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시기
- 반복과 꾸준함에 따라 실력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
- 손가락 계산을 줄여가며 점차 머릿속 연산으로 전환
- 친구나 형제와 비교하면서 자존감에 영향을 받음
- 규칙, 순서, 정답에 민감해지고 실수에 자책하는 경향
-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추론하는 사고력 학습의 기반이 형성됨

2. 상담 포인트

- 풀이 과정, 사고의 흐름, 질문의 태도를 중심으로 상담
- 어떤 개념을 어려워했는지 분석해주는 상담이 효과적
- 손가락을 쓰는 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
- 비교보다는 '아이만의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는 상담

3. 상담 예시

- “아직 손가락을 쓰는 건 자연스러워요. 손가락을 사용하더라도 잘 사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머릿속에 떠올라 사용하지 않게 될 거예요.”
- “구구단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식을 만들어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곱셈을 하었어요. 스스로 곱셈을 하는 것에 신기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 “친구가 계산을 빨리 해도, ○○는 조금해하지 않고, 끝까지 정확하게 해냈어요. 주변에 동요되지 않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 “오늘은 실수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고쳤어요. 다시 문제를 확인해보고 검토하는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있네요.”
- “‘틀려도 다시 하면 돼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배움에 대한 태도가 건강하게 잡혀가고 있어요.”
- “교구를 활용해서 규칙을 만들고, 식으로 나타낸 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시간보다 이해한 걸 표현하려는 힘이 더 커졌네요.”
- “요즘엔 손가락 계산 없이도 $8+5$ 를 바로 말하더라고요. 어려워하던 부분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 “‘선생님, 이거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죠?’라는 질문을 했어요.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사고가 넓어졌어요.”
- “문제 풀이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요. 논리적 사고가 쑥쑥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 “오늘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하나 더 풀고 싶다고 했어요. 학습에 대한 흥미와 주도성이 커지고 있어요.”
-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고 말하더라고요. 실수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 “지금은 속도보다 정확성과 개념 이해가 더 중요한 시기예요. 기초가 탄탄한 아이가 결국 더 멀리 가요.”
- “오늘 수업에선 질문이 많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태도였어요.”
- “구구단은 외웠지만, 아직은 문제 안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혼란스러워해요. 지금은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아이들이 계산은 잘하지만, 문제 속 문장을 파악하는 데 아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 “지금은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고 있는 단계라, 급하게 선행하기보다 현재 개념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